

## ● 제12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 훈·포장 3명, 대통령표창 3명 등 총 71명 수상 영예 -

한국전기신문사가 주관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 '제12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이 김영하 지식경제부 차관과 정장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의원, 노영민 의원, 김기현 의원 등을 비롯한 국·내외 전기인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기념식에서 전력산업 발전에 공헌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한국전기문화대상에는 삼성물산(주) 건설부문(대표이사 부회장 이상대)이 단체 수상하였다.

국내 최초 해양 공사인 울구만 송전선로공사, 울진 원전공사, 당진 화력발전소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했고,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실현과 유비쿼터스 기술 접목, U-CITY기술 등 전기통신 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최고 영예의 동탑산업훈장은 배선기구 제조업체 대표로서 적극적인 신기술 개발로 한국 전기기술의 선진국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로 국가경제 및 전력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한 파나소닉전공신동아(주) 배홍기 대표이사가 수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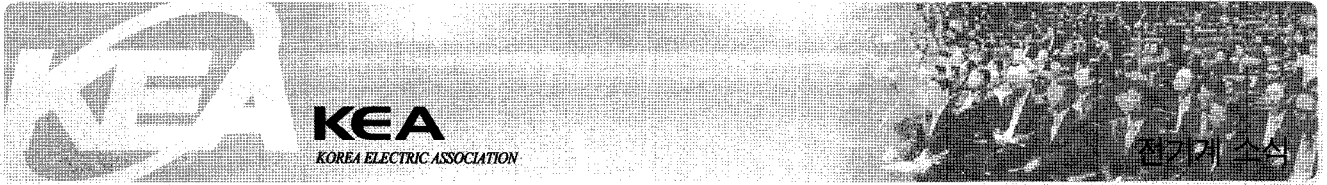
파나소닉전공신동아(주)는 종합 배선기구 전문 제조업체로서 '품질경쟁력 우수 50대 기업'으로 2회 연속 선정, 국내 최초의 액자형 분전반 개발 등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국내 전기기술의 선진국 도약 발판 마련 및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확대로 국가 전력산업발전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한미전선(주) 성병경 대표이사과 삼신기업(주) 오화년 대표이사 등 2명이 산업포장을, 루멘전광(주) 이석진 대표이사 등 3명이 대통령 표창, 남영기전(주) 김근태 대표이사 등 4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번에 제12회째를 맞는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은 한국전기신문사가 주관하고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한국전력공사가 후원하는 행사이다.

## ● 2009 국제전력IT(스마트 그리드) 및 전기설비전 개최

-전세계 전력업계 큰손 35개국 150개사 방한  
지식경제부(장관:이윤호) 후원으로 한국전력기술



인협회와 KOTRA가 공동 주최하는 “2009 국제전력IT(스마트 그리드) 및 전기설비전(Global Electric Power Tech 2009, 이하 글로벌 파워텍)”의 개막식 행사가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글로벌 파워텍은 국내·외 22개국, 249업체(456부스)가 전시회에 참가했으며, 플랜트 및 기자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대양주, 북미,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CIS\*, 유럽 등 35개국 150개사의 발주처, EPC\* 기업 및 유력 수입상 등 150개사가 초청되었다.

본 전시회는 정부, 전력기술인협회, KOTRA, 전력업계 공동으로 전력 플랜트 및 기자재 수출 진흥 모델을 구축한 전시회로서, 1,700여개의 회원사와 100만 전기인을 관리하는 전력기술인협회와 전세계 95개의 Korea Business Center를 보유한 KOTRA가 공동 주최하여 국내·외 마케팅 역량을 집중, 범국가적 시너지 효과를 배가하는 전시회로 거듭나고 있다.

### ● 신성장동력 박람회 개최

- 3대분야 17대과제 신성장동력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조망



- 톰피터스, 최태원회장 기조강연과 국내외기업 CEO 발표 연이어
- 현대자동차, 삼성SDS 등 160여개 국내기업 전시회 참가

한국경제를 이끌고 나갈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선정된 3대분야 17대 신성장동력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린다. 지식경제부와 미래기획위원회는 ‘신성장동력 박람회 2009’ 행사를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했다.

‘신성장동력 박람회 2009’는 개막식, 전시회, 국제컨퍼런스, 투자설명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개막식에서는 세계적 경영컨설턴트인 톰 피터스 박사가 ‘초우량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최태원 SK회장이 ‘신성장동력!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의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신성장동력 관련 세계적인 추세 및 주요 기업의 추진전략이 발표되었다. 지멘스코리아의 조셉 마일링거 사장은 '다국적기업이 추구하는 녹색성장' 을, 미국 실리콘밸리의 투자회사 '드레이퍼 피셔' 의 페리 하 사장은 '신성장동력 : 대한민국과 실리콘밸리' 등을 각각 발표했다.

전시회는 민·관이 함께 만든 583개 부스(15,714㎡)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3대분야(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17개 전시관과 녹색생활체험관 그리고 신성장동력 직업 홍보관, 신성장동력 펀드상담운영관, 신성장동력 중소기업관의 3개 특별관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투자설명회에서는 미래 신성장동력 스마트 R&D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설명을 비롯해 신성장

동력 펀드운영,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지원방안, 신성장동력 관련기업 세무조사 면제방안, 신성장동력 인력양성계획, 17개 분야 신성장동력별 세부추진 전략 등 정부차원의 세부추진 정책이 발표되었다.

'신성장동력 박람회 2009'는 이명박 정부가 한국 경제를 이끌고 나갈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선정한 신성장동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그 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신성장동력의 현재와 미래 모습을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신성장동력 육성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